

문명의 환타지 ... 지구촌이 열광했다



실크로드 공연 8일 밤 8시(현지시각) 베이징의 메인스타디움 '궈자티위칭(國家體育場)'에서 열린 제 29회 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진시황 시대 무희들 8일 열린 개막식에서 진시황 시대를 연상케 하는 중국 전통복장을 차려입은 무희들이 황제의 상징인 황금빛 세트와 어우러져 과거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8일 오후 8시(현지시각)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인 '궈자티위칭(國家體育場)'에서 열린 개막식은 중국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날 개막행사는 한때 세계의 주인공으로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중국의 과거와 또 다시 세계 강호로 떠오른 현재, 대중화를 앞세워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서고자 한 미래에 대한 열원을 파노라마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현란한 하강쇼

무용수들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와이어를 타고 현란한 하강쇼를 벌이고 있다.



아광복장 아광복장을 입은 이들이 중국을 지배했던 역대 5대 왕조와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표현하고 있다.



조선족도 한 뭉 중국내 소수민족 공연 중 조선족 무용수들이 전통 복장인 한복을 차려입고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고 있다.



집단 태극권 중국 무예인들이 8일 열린 개막식에서 자국의 전통 무예인 쿵푸를 현대화한 쿵푸쇼를 뽐내고 있다. 이날 쿵푸쇼는 1시간 분량의 중국 테마 역사쇼 중 하이라이트 코너로 마련됐다.



용의 부활 중국인이 가장 상서롭게 여기는 상상속의 동물인 용의 승천과 부활을 주제로 한 공연이 녹색 그라운드에서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다.